# ‘배달 앱’ 배만 불렸다

## 호남권 음식점·주점, 매출의 64% ‘배달 앱’ 주문…평균 2.5개 사용
## 매출 늘었지만 영업이익 개선 안돼…“후기로 피해 경험” 90% 달해

배달음식 이용자가 늘면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전라권 음식점·주점 매출의 64%는 배달 앱 주문을 통해 나오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라권 응답자의 90% 가까이는 소비자 잘못을 음식점 실수로 넘기는 등 배달 앱 후기로 인한 피해를 경험했다.

이 같은 내용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2021년 소상공인 배달 플랫폼 실태조사’ 결과에 담겼다.

해당 조사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난해 8월 전라권을 포함한 5개 권역 소상공인 음식점과 주점 300곳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라권 자영업자들은 평균적으로 배달 앱을 2.5개 사용하고 있었다.

전라권 상인들이 사용하는 배달 앱은 ‘배달의 민족’이 83.3%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요기요’(62.5%), ‘쿠팡이츠’(52.1%), ‘네이버 주문하기’(12.5%), 기타 민간 배달앱(2.1%) 등 순으로 나타났다. 공공배달앱을 사용하는 상인 비중도 37.5%를 차지했다.

현재 거래하고 있는 1순위 배달 앱 역시 배달의 민족이 77.1%로 가장 많이 꼽았다. 공공배달앱이 16.7%로 뒤를 이었고, 요기요(4.2%), 쿠팡이츠(2.1%) 순으로 나타났다.

배달 앱 거래를 시작한 시기는 코로나19 확산 첫해인 2020년이 43.8%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21년 25.0%, 2019년 14.6%, 2018년 10.4%, 2017년 이전 6.3%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소상공인은 매출의 64.3%를 배달 앱에 의존하고 있었다.

지역 상인들의 절반 이상은 배달 앱에 입점한 뒤 광고·홍보 효과와 매출액이 늘었다고 답했지만, 영업이익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권 상인 58.3%는 배달 앱 입전 후 광고·홍보 효과가 늘었다고 답했고, 감소했다는 답변은 없었다. 이전과 변화가 없다는 응답률은 41.7%였다.

응답자 54.2%는 배달 앱에 입점한 이후 매출액이 증가했다고 말했지만, 영업이익이 증가했다는 응답률은 20.8%에 그쳤다.

배달 앱을 쓰며 매출액이 늘었다고 해서 수익성이 개선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전라권 상인들의 58.3%는 배달 앱에 실린 소비자 후기(리뷰)를 관리하고 있었다. 방법은 ‘후기에 댓글 달기’ 등이 있었다.

소비자 후기로 인한 피해 경험을 묻자 89.6%는 ‘소비자의 잘못을 음식점 실수로 전가’하는 피해를 겪었다고 말했다.

‘이유 없는 부정적인 평가’(81.3%)와 ‘리뷰를 담보로 무리한 서비스 요구’(79.2%)도 있었고 ‘상습적 낮은 별점 테러’를 당했다는 응답률도 70.8%에 달했다.

전라권 응답자의 95.8%는 배달 앱이 소상공인에 제공하는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배달 앱과 소상공인이 상생하기 위한 지원사항 1순위로는 ‘광고 수수료 인하’(39.6%)를 가장 많이 꼽았고, ‘판매 수수료 인하’(33.3%), ‘마케팅 활동비 지원’(10.4%), ‘배송·배달 서비스 지원’(4.2%), ‘빠른 정산서비스 제공’(4.2%), ‘전용 단말기 등 시설·장비 지원’(4.2%) 등을 택했다.

상생 협력 장려를 위해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상생 협력 사업비 지원’(29.2%), ‘소상공인 계약 가이드라인 마련’(22.9%), ‘상생 협력 사업비 관련 세제 혜택’(18.8%), ‘수수료 산정기준 및 적정성 검토’(10.4%) 등을 들었다.

전라권 응답자 가운데 월평균 매출액이 300만원 미만이라고 답한 비율은 2020년 55.3%에서 2021년 63.8%로 8.5%포인트 늘었다.

반면 월 600만원 이상 매출을 올렸다는 상인은 23.7%에서 17.0%로, 1년 새 6.7%포인트 감소했다.

월평균 영업이익이 20만원도 되지 않는다는 응답률은 26.3%에서 33.3%로 7%포인트 늘었다. 월평균 영업이익이 120만원 이상이라는 비율은 23.7%에서 16.7%로 7%포인트 줄었다.

구 의원은 이런 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 “소상공인 정책을 전담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으로 배달 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상생 협의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반도체·자동차…스텝 꼬이는 한국 경제

## ‘美 3연속 자이언트 스텝’에 한은 내달 0.5% 인상 ‘빅스텝’ 시사…국내 산업계 촉각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3번째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한 번에 0.75%포인트 인상)을 밟자 국내 산업계가 향후 닥쳐올 엄청난 여파에 온통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연준의 금리 인상이 미국 현지의 경기침체를 유발해 국내 기업의 수출상품 수요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한국은행이 한미 금리 역전을 막기 위해 따라서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경우 중소기업 등 금융방어력이 취약한 국내 기업들은 또 다른 비용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연준은 4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물가를 잡기 위해 전날(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렸다.

대폭 금리 인상으로 미국 현지에서는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세계 경제의 최대 엔진인 미국이 흔들릴 경우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미 한국 수출은 무역적자가 25년 만에 6개월 연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급격히 둔화하는 양상이다.

이중 국내 주력산업인 반도체업계가 금리 인상에 따른 업황 악화를 가장 걱정하고 있다. 글로벌 메모리반도체 업황은 올해 들어 다운사이클에 진입해 최근 가격 하락 폭이 커지고 있다. 세계 경기를 따라가는 메모리 산업 특성상 이번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업황 악화는 더 가속할 전망이다.

실제 스마트폰, PC용 등 소비자용 반도체 수요는 급감했고, 상반기 견고했던 데이터센터용 서버 수요도 둔화하는 상황이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은 수출 비중이 큰 국내 완성차업계에도 반갑지 않은 소식이다.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면 자동차 할부 금리도 따라 오르면서 현지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비 위축은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한국 차 수요에 더욱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현지에 대규모 시설 투자를 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금융비용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170억달러(22조원) 규모의 시설 투자를 진행 중이다.

또 미국 기준금리(3.0~3.25%)가 한국(2.5%)보다 높아지면서 한국은행이 해외자금 유출 등을 우려해 국내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할 경우 대출 비중이 높은 국내 기업은 또다시 높은 이자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한편 국내 기준금리도 한 번에 0.50%포인트 올리는 ‘빅 스텝’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0.25%포인트 인상의 전제 조건이 많이 바뀌었다”며 “다음 금통위까지 2~3주 시간이 있는 만큼 금통위원들과 함께 이런 전제조건 변화가 성장 흐름, 외환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기준금리 인상 폭과 시기 등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산지 유통관리자 협의회 워크숍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22일 여수 예술랜드에서 전남·광주 소속 지역농협 산지 유통관리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을 열고 정부 원예산업발전계획 개편 방안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농협 전남본부 제공〉

# 광산업진흥회 ‘ECOC 2022’ 170만 달러 구매 계약

한국광산업진흥회는 지난 19부터 21일까지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유럽 최대 규모의 광ICT융합학술회 및 전시회 ‘ECOC 2022’에 국내 기업 18개사와 공동관을 구성, 170만 달러 상당의 구매계약 체결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진흥회는 ECOC에 지난 5년간 한국 공동관으로 참가해 지속적인 해외마케팅 지원활동을 펼쳐왔다. 지난해 프랑스 보르도에서 개최됐던 ECOC 2021에서는 전시회기간 140만달러의 구매계약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170만달러 구매계약 체결이 기대된다는 게 진흥회의 설명이다.

진흥회는 또 이번 유럽 현지에서 기업과 상담했던 실질적인 해외바이어를 오는 11월 23일~24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될 ‘2022 광융합산업로드쇼’에 초청해 상담 연계를 통한 지속적인 성과 확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ECOC 2022 이외 올 하반기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개최되는 ‘Lighting&Build 2022’, 베트남에서 개최되는 베트남 환경에너지산업전 등에도 공동관 지원을 추진해 국내 광융합산업기업의 해외 수출을 위한 판로개척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정철동 진흥회 회장은 “국내 광융합산업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매년 5개 해외전시회를 지속 참가해 지원하고 있다”며 “광융합산업기술지원법에 따른 전담기관으로서 국제협력 및 해외 판로개척 추진에 적극 앞장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 수입 농산물 늘리는 광주·전남 농협 공판장

## 취급액 2년 연속 증가…5년 간 1758억원 상당

광주·전남 농협 공판장들의 수입 농산물 취급액이 2년 연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여간 수입 농산물을 취급한 농협 공판장 54곳 가운데 광주원예농협은 수입 농산물 취급액이 전국에서 5번째로 많았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미향 의원(무소속)이 농협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광주·전남지역 농협 공판장 7곳이 취급한 수입 농산물 금액은 1758억원 상당(7만8075t)에 달했다.

광주·전남 농협 공판장들의 수입 농산물 취급액은 2019년 291억원(1만3079t), 2020년 317억원(1만3740t), 2021년 336억원(1만4219t) 등으로 2년 연속 증가 추세다.

지난 5년 동안 지역 농협 공판장들은 매년 1만4000t 안팎 수입 농산물을 취급하고 있는 셈이다.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여간 수입 농산물이 판매된 공판장은 총 54곳이다.

판매금액이 가장 높은 공판장은 대전공판장으로 1414억원의 수입 농산물이 유통됐다. 다음으로는 가락공판장 1190억원, 구리공판장 884억원, 반여공판장 833억원, 광주원예농협 700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지역 농협 공판장 가운데 지난해 수입 농산물 취급액이 전년보다 증가한 곳은 광주공판장(5.7%↑), 광주원예농협(3.1%), 목포원예농협(83.4%), 여수원예농협(46.7%), 나주배원예농협(4.9%) 등 5곳이다.

윤미향 의원은 “농협 공판장은 우리나라 과일, 채소 유통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수입농산물 취급 비중을 최소화하는 것과 별개로 수입농산물 판매로 거둬들인 농협공판장 수익을 국산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업인에게 환원시켜야 한다”며 “국산 농산물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 논의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도농사(社)랑 운동’ 1호 탄생

## 대호건설-서진도농협 협약

기업이 농업·농촌 발전에 협력하는 ‘도농사(社)랑 운동’ 협약 1호가 탄생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22일 서진도농협과 ㈜대호건설이 서진도농협 회의실에서 전남지역 최초로 도농사(社)랑운동 협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실천을 농업과 농촌으로 유도하고, 농협과 기업 간 상생 협력을 내실 있는 실천사업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새로운 도농 교류 운동이다.

협약식에는 주명규 농협 진도군지부장과 한옥석 서진도농협 조합장, 김남중 대호건설 대표이사 등 임직원 및 농업인 3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을 통해 농촌일손돕기, 마을 가꾸기 등의 농촌 재생 사업, 농촌자원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맞춤 교류사업모델 개발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대호건설은 진도지역 향토기업으로 농촌 주거환경 개선과 기부 등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광주·전남 노란우산 고객권익보호위 출범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22일 공제가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광주전남 노란우산 고객권익보호위원회’를 출범하고 위원 위촉식 및 간담회를 진행했다.

공동 위원장으로는 정용기 전남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와 정관호 조선옥 대표(전 외식업중앙회 광주남구지회장)가 위촉됐으며, 위원으로는 각 업종을 대표하는 노란우산 가입자, 광주경제고용진흥원 등 소상공인 지원기관 전문가를 포함한 10인이 위촉됐다.

위원회는 광주·전남지역 노란우산 가입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의견수렴 및 자문기구로 기능하게 된다.

노란우산은 2007년 9월 출범한지 15년만인 올해 7월 부금 20조원, 재적가입 160만명을 넘어서며,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으로 자리잡았다.

위원회에서는 노란우산이 고객중심적인 제도로 운영되도록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복지서비스 확대에 대한 전문가 자문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정용기 위원장은 “노란우산이 광주·전남 약 9만명이 가입돼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대표적 공제제도로 자리를 잡은 만큼, 고객 중심적인 제도운영을 위해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 |
|---|---|---|
| ↓ | 코스피 | 2332.31(-14.90) |
| ↓ | 코스닥 | 751.41(-3.48) |
| ↑ | 금리 (국고채 3년) | 4.104(+0.257) |
| ↑ | 환율 (USD) | 1409.70(+15.50) |